

나주배 새로운 도전... 품질 'UP' 명성 'UP'

국내 최대의 배 생산지인 나주시가 해외 수출시장과 국내 소비자 기호에 맞는 맞춤형 고품질 생산·유통을 통해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시는 지역 특화품목인 나주 배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배 육성 계약출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고품질 배 생산·유통 계약출하 지원사업은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등 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배 등 국내산 과일 소비 정세에 따른 가격하락과 수급 불안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탐스런 배를 수확하며 기뻐하는 나주 농민들.



만개한 배꽃밭에서 이뤄지는 꽃가루 수정작업.

**성장촉진제 배제 신뢰 확보
수출전문단지 조성 확대 등
나주시 다양한 지원 나서**

**공동선별출하 조직 육성
농사 전념해 마케팅 지원
수출국 다변화 경쟁력 제고**

나주시는 올해부터 나주 배 육성정책으로 ▲무(無) 성장촉진제(지베렐린=gibberellin)처리 고품질 나주 배 계약출하 ▲수출단지 확대 육성 ▲수분(受粉)수종 식재 및 품종갱신 육성 ▲공선(공동선별) 출하 조직육성 및 마케팅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고품질 배 생산·유통 계약출하 활성화 추진=이를 위해 시는 2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생산농가와 공선출하 조직(나주배원에농협, 조공법인, 지역농협 등) 및 행정이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수출국별 기준에 맞는 중소과(中小果)생산 수출 전문단지와 국내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무(無) 성장촉진제 고품질 배 생산단지를 육성할 계획이다.

시는 나주배 명성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을 무분별한 지베렐린 처리로 보고, 올해 목표를 '무 지베렐린 처리 배 생산 원년'으로 정했다.

시는 이를 위해 '무 지베렐린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비수기 국내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 배를 생산해 사계절 유통함으로써 소비자로부터 나주배 브랜드

드 위상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배 농가는 추석 명절에 맞춰 출하하기 위해서 당도와 저장성이 떨어져도 어쩔 수 없이 지베렐린을 사용해 왔다.

시는 공선출하 조직에 소속된 농가와 계약을 맺고 내수용 무 지베렐린 생산단지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출하한 배를 전량 매취 및 수탁처리 함으로써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계약재배가 실시되면 농가는 판로와 가격에 걱정 없이 재배에만 전념하고 수확해서 공선출하 조직에 출하하면 된다. 이에 앞서 지역농협 관계자들도 올해 설 명절전 모임을 갖고 앞으로 지베렐린을 바른 배는 입고 배제하기로 알려주려 농가의 참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품질이 낮은 중국산 꽃가루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국내산 꽃가루 채취단지 조성으로 품질을 향상해 나갈 방침이다.

과수원에 수분 수종 식재(국비 50%, 지방비 50%)를 20% 이상 늘려 혼식 식재로 꽃가루 인공수분을 줄일 계획이다. 낮은 수준의 공선출하조직은 선별·포

장비 등을 지원해 농가의 계약재배로 수탁·매취 비율을 높여 중대형 유통망 다양화에 노력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나주배 농가의 판매처별 출하비율은 ▲자가선별 직거래 60% ▲공동선별 20% ▲발매기와 배즙가공 20%로, 농협을 통한 유통은 낮은 수준이다.

시는 농가와 공선출하 조직을 대상으로 봉지 씌우기부터 선별·포장 출하까지 맞춤형 생산과정의 기술지도와 유통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해외 수출국 의존도 다양화=또한 생산 농가와 공선출하 조직의 경영안정화에 기여하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배 재배 기술보급과 해마다 인센티브 사업을 도입, 스스로 판로확대 및 수급조절이 가능도록 사업비 투자 효율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수출분야는 ▲농가의 수출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수출단가 하락 ▲농협의 연중 적극적인 바이어 확보 ▲국내 과일물량 해외격리 미흡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수출 전문단지의 배는 국제 우수농산물 관리인증(Global GAP)기준에

맞게 생산해 미국 등 해외 수출국별로 상품을 분류하고, 미국(85%), 대만(10%), 기타(호주, 동남아) 5%에 편중돼 있는 수출국 의존도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고품질 배 계약출하 목표를 수출전문단지 200ha를 포함해 300ha(9000t)로 설정하고, 점차 늘려나갈 2017년까지 700ha(2만1000t)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최근 세부사업 추진지침을 확정하고 공선출하 조직을 통해 사업 참여농가와 생산·출하 계약을 이달 말까지 체결할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모집하는 '무 지베렐린 생산단지' 계약출하 농가는 내수용으로 100ha(2500t) 규모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고품질 생산 및 유통구조 개선 등으로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나주배 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향상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는 2443 농가에서 전국 배 생산량의 20%(6만여t)를 생산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배 생산지이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혁신도시 임직원 건강 책임집니다”

나주시 건강증진센터·보건소, 한전·한전KPS와 협약

나주시가 혁신도시 임직원들의 건강 증진에 발벗고 나섰다.

나주시 건강증진센터와 나주시보건소는 최근 한국전력공사, 한전KPS(주)와 '신바람 건강증진 프로그램'(Health up! day) 운영협약을 체결했다.

나주시보건소는 이달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양 기관에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전문위원을 투입해 건강행태 개선에 나서게 된다.

시 보건소가 '신바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나선 것은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함에 따라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건강관리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새로운 직장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스트레스 등으로 인

해 영양상태 불균형과 생활 습관병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시 보건소는 지난 10일 빛가람동 한전 임직원 104명을 대상으로 체지방과 대사증후군 검사, 금연클리닉, 개인별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미각실험, 식습관 조사를 실시했다.

나주시 건강증진센터 역시 앞으로 우울증과 스트레스 혈관나이 측정, 마음건강 검사를 통해 정신과의사 및 정신보건 전문위원 상담, 사례관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정희 보건소장은 “앞으로 타 기관에도 지속적인 신바람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 직장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KTX 나주역 정차 24회로 늘어 교통편의 향상

오는 4월 2일 공식 개통되는 호남고속철도(KTX) 나주역 정차횟수가 두배로 늘어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과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충북 오송~광주 승정을 잇는 호남고속철도 개통으로 나주에서 서울까지 1시간 50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또 나주역 정차횟수는 종전 왕복 12회에서 24회로 늘어난다.

나주시는 호남고속철도의 나주역 증차와 관련, 주차장 무료개방과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등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4월 2일부터 나주역 주차장이 무료 개방된다. 나주역은 현재 코레일 네

트릭스가 임대 운영하는 주차장 70면과 나주역 광장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임대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130면, 인근 사유지(1900㎡) 50면 등 모두 주차장 250면을 갖추고 있다. 또한 4월 1일부터 시내버스 운행을 173회로 늘려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구축했다. 노약자와 짐이 많은 승객의 편의를 위해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등도 확충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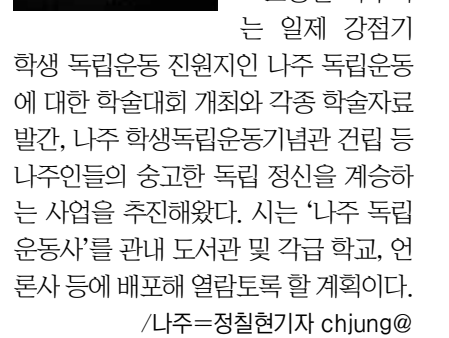
나주시 관계자는 “나주역 정차 횟수가 늘면서 영암과 강진, 완도, 해남, 장흥 등 전남 서남부권의 교통 무료화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주차장 무료이용 등으로 나주역이 활성화되면서 지역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광복 70주년 맞아 '나주 독립운동사' 발간

나주지역 독립운동 역사와 인물을 집대성한 '나주 독립운동사'가 최근 발간됐다. 나주시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지역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을 담은 '나주 독립운동사'를 펴냈다.

나주 독립운동사는 의병운동과 계몽운동을 통한 한말 국권 회복운동을 비롯해 ▲항일 비밀결사와 3·1운동을 통한 1910년대의 독립운동 ▲임시정부 참여는 물론 청년, 노·농, 신간회, 교육, 학생 운동 등을 총체적으로 전개한 1920년대의 독립운동 ▲1931년부터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전까지 추진한 독립운동 ▲중일전쟁 발발 이후 1945년 해방 때까지 시기를 구분해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또한 의병항쟁과 나주 유류 각 시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선후기의 양반 사족과 향리 활동은 물론 1876년 개항 이후의 나주 역사에 대한 배경 설명도 덧붙였다. 그동안 나주시는 일제 강점기 학생 독립운동 진원지인 나주 독립운동에 대한 학술대회 개최와 각종 학술자료 발간, 나주 학생독립운동기념관 건립 등 나주인들의 숭고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시는 '나주 독립운동사'를 관내 도서관 및 각급 학교, 언론사 등에 배포해 열람토록 할 계획이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3년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매일”은 광주일보사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입니다.

지방지사		시내지국	
광신 0621944-0444	남원시 0631626-1601	광천 966-8375	
군산시 063467-2500	순창군 0631653-0444	남광부 722-9440	
정읍시 0631531-5544	서율보급소 021313-5962	동명 882-0175	
		동부 264-2012	
		문흥 222-9054	
		백운 225-5001	
		선봉 267-4718	
		북광주 872-4688	
		상무 675-5530	
		서광주 525-3781	
		송하 377-2352	
		신안 369-0683	
		양산 678-6605	
		우치 571-7658	
		유봉 386-7001	
		유천 522-7752	
		원곡 512-8116	
		유천 371-9818	
		원곡 961-9338	
		원곡 222-1986	
		원곡 224-6804	
		원곡 873-1600	
		원곡 973-2900	
		원곡 256-8212	
		원곡 376-6511	
		원곡 682-8112	
		원곡 959-1800	
		원곡 375-9662	